



불량을 감소 소음방지 및 안전도모

환경 친화성 대체물질 개발 시급

최창래 / (주)대일산업 생산부 헬리오과 과장

이번 제5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중 생산·품질관리 부문에는
최창래 (주)대일산업 생산부 헬리
오과 과장이 선정됐다.

“옆에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큰
상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
기로 더욱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대신했다.

이번 최창래 과장이 개발한 대일도트는 잔글
씨 문제를 해결, 자동 테스트 컷을 실시해 불량
률을 감소시키고, 자동 커버를 달아 소음방지
및 안전을 도모했다. 또한 생산성을 30%이상
증가시켰으며 ISO 인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돼 이번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되었다.

(주)대일산업에 입사하면서 포장을 처음 접
하게 됐다는 최창래 과장은 벌써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껏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그만의 노하우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대일산업에서 최창래 과장
은 생산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
하고 있다.

“아이템에 대한 생산 요령
과 장비, 인원 및 재원관리 등
헬리오시스템 관리는 물론 납
기나 제판·인쇄 상담의 고객
관리, 불량이나 공정별 문제점을
체크하는 생산품질 관리 등등 전반적
인 생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
명했다.

“현 과다업무에 대해 힘들지 않느냐”는 본 기
자의 질문에 “어떠한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
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흥미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힘들기는 커녕 오히려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하나씩 도전하며 나아갈 때 자
신은 물론 나아가서 회사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탄탄한 노하우로 포장 발전에 힘쓸터

때문에 최창래 과장은 현재 몇 가지만을 활용하고 있는 ERP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일산업은 기존에 사용되던 방법인 동판을 화학물질로 부식시키는 것을 개선하고자 독일의 유명한 동판제조 회사인 헬(hell)사에서 기계를 수입한 뒤, 이 기계를 토대로 국내 제품에 맞도록 다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최창래 과장이 지금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은 굳은 신념과 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을 할 땐 오직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확인의 확인을 거듭하여 완벽을 기하며, 메모하는 습관으로 일에 대해 꼼꼼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고객의 need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며 힘주어 말했다.

또한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고자 인쇄에 관해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창래 과장은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여러 차례 친목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해서 기분 좋게 퇴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개인의 마음과 기분 상태에 따라 생산성은 물론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최창래 과장은 직원들의 대소사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창래 과장은 “국내 그라비아 인쇄기계는 물론 원색 효과와 인쇄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라며 “현재는 그라비아 인쇄도 환경 친화성을 중요시하는 추세로 이에 맞는 대체물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현 동판제조 업계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포장관련 업체 중 특히 제조업과 같은 경우 정보력 또한 너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넓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업종간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일에 대한 열정과 탄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최창래 과장의 일에 대한 자신감에서 본 기사 또한 포장산업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권해진 기자